

폭염 대비 철저 '가축을 지키자'

농진청, 축산현장 중심 '고온기 기술지원' 추진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폭염일수는 1990년대 8.2일에서 2010년 대에는 15.4일로 늘었다. 가축은 고온 환경에서 체온 조절을 위해 호흡수가 증가하고, 사료 먹는 양이 준다. 또한 체내다시 분뇨형 번식 장애, 면역력 감소 등이 나타내며 심하면 죽는다.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 피해 가축 수는 907만 8,000마리에 달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는 여름이던 더위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비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개선, 폭염 대비 기술서 및 안내서 제작·보급 등 '고온기 종합기술지원'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도립·시군센터)과 합동으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8월까지 지원활동을 나선다.

폭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를 '중점 기술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피해 우려 지역 농가와 시범 및 실증농가를 방문해 개성점을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9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기술지원 결과, 주요 개선점으로 송풍팬 각도 조절 및 축사 주변 정리를 통한 환기량 개선, 사료 급여 횟수 및 급여 시간 조절로 사료 섭취량 개선, 그늘막 설치 및 지붕 위 불 뿌리기로 축사 내부 복사열 차단 등이 꼽혔다.

폭염 반병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 더위 지수(TII) 예측 정보와 고온기 사육관리 요령을 제공하는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개설했다. 가축 더위 지수 단계에 따라 생산성 변화 수준을 알려주는 상태 창과 고온기 사육관리 대표 기술을 설명하는 화변을 개설했다.

축산농가에서 폭염 대응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온기 가축 피해 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서'와 '여름철 사육관리 및 위생관리 이렇게' 안내서를 만들어 보급했다.

핵심 기술서에는 주요 축종 외에도 열소, 사슴, 말 등 기타 축종의 고온기 관리 기술도 함께 담았다. 이 자료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http://www.nias.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박병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축산농가의 폭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고온기에 철저한 사전 대비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연구용 체리 수확하는 날' 2일 원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시험 재배지에서 현장실습 대학생들이 연구용 체리를 수확하고 있다.

제품홍보·투자유치 기회 제공 '소상공 쇼케이스 데이'

30일까지 유망 소상공인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민홍기, 이하 희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쇼케이스 데이(이하 쇼케이스 데이)'를 개최해 전국의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한다고 2일 밝혔다.

쇼케이스 데이는 우수한 제품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에게 제품홍보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투자유치 피칭 대회로, 올해는 7회째이다. 이번 행사는 예산(서류평가), 본선

(발표평가), 최종 결선리그로 이루어지며, 결선 진출팀에게는 약 2개월간의 4-STEP 성장 패키지 프로그램(사업모델, 발표스킬, 브랜드 네트워킹)을 제공해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결선리그에서는 투자 IR을 비롯하여 제품전시, 라이브커머스 네트워킹 등이 진행되며, 우수팀들에게는 총 3,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소진공 및 희망재단 지원사업 참여기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네이버, 와이앤아처(주)가 쇼케이스데이에 참여해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며, A-STREAM 출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기부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생활혁신성장지원사업

수혜자, 역량강화(컨설팅)사업 수혜자 및 창업 5년 이내의 일반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재경 청장은 "소상공인만의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려졌다"며 "IR피칭을 통해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사업 참여 관련 상세 내용과 접수는 중소기업희망재단 누리집(www.hcc-mangchik.or.kr)에서 확인해 신청하며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일 한국장학재단(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푸른동네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기탁식 행사를 통해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전달했다.

취약계층 수급자 자녀에 사랑의 장학금

국민연금, 총 1억5000만원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일 한국장학재단(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푸른동네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기탁식 행사를 통해 1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장학금 전달로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인 대학생 100명이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공단은 매년 '희망있는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수급자 가정의 중·고등학생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89명에게 약 7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중·고등학생 160명을 선발해 약 1억4,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아동·청소년 후원 프로그램, 장애이동 재활치료비 지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나

눔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사회공헌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난해 8월 '국민연금 나눔재단'을 설립해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재단은 △저소득가정자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희망드림 연금보험료 지원' △취약계층 연금수급자를 위한 '바람있는 사회봉사' 등 기존 공단 수행사업을 비롯해 신규사업 발굴로 공단의 사회공헌 영역을 확장해 갈 예정이다.

김정화 연금이사는 "이번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실천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임무는 병해충 발생 상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진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병해충 관련 홍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안

전사고 예방 교육 등이다.

대책본부는 기간에 참나무시들음병,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매미나방 등 산림과 농경지를 이동하면서 큰 피해를 주는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에 대해서 시·군과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8개 시·군, 189ha에 합동방제를 추진하는 등 산림병해충 피해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매출대금 받고, 경품도 얻고

전북은행, 가맹점 대상

'경품가득 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경품가득 가맹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전북은행 통장을 신규 발급 받아 계좌에 매출대금 1만원 이상 입금 시 선착순 2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한다. 전북은행 통장 기 보유자 중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출대금 미입금자도 본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북은행 계좌에 매출대금 월평균 200만원 이상 입금 시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에어드레시(1명),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폴프에디션(2명), 기프트카드 10만원(3명) 등을 지급한다. 단, 이벤트 종료일 기준 마케팅 동의 필수 및 정상 유지계



좌에 한해 사은품 및 경품을 지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전북은행을 찾아 주시는 가맹점주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

로 생각하며, 함께하는 성장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나전북본부, 위기대비

본부장 특별 안전점검

나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2일 정읍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위기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경영상의 강력한 의지 전파를 위해 진행된 이날 안전점검에서 전북본부는 위기철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도 추진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굴착구간 확인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적정성 △기타 건설공사 품질확보 점검에 초점을 두었다.



나전북지역본부는 2일 정읍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위기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전북본부는 지속 강화되는 안전기준 및 점검에 지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네밴드 선공 등 격려물품

도 전달했으며, 실질적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점, 커피, 휴식 및 확장 작업수대 등 물품 지원을 약속했다.

안전점검 본부장은 "안전보다 우선의 가치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이 먼저인 건설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안전의지 전달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지하안전협회

정보 정확도 개선 협약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류기정)가 안전한 지하공간의 개발·이용·관리를 위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한다.

LX공사와 한국지하안전협회는 2일 LX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지하안전 확보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하 안전평가 및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력 △지하정보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 지원 및 지속발전 가능 모델 발굴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지하시설물은 상수·하수·전기·통신·가스 등과 같은 국가 핵심 SOC로서, 노후화에 의한 누수·폭발·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하정보 전달기구조 지정된 LX공사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를 구축하고, 한국지하안전협회의 지하안전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안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양영휴 지하정보부장은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하안전협회 류기정 회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뢰성 높은 지하정보 구축과 지하안전평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하안전협회는 지하의 안전한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의 육성, 연구·개발,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5개 권역의 9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aT, 농식품미래기획단

9기 160명 모집... 청년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준진)가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내한민국 농식품미래기획단(YAFF: Young Agri-Food Fellowship, 이하 YAFF) 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모집 예정인 YAFF는 7~8월 여름방학을 활용한 프로젝트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형태로, 기존의 그룹 형태가 아닌 청년 1인이 기업과 1개와 정책 제안 1개를 동시에 수행한 후 분야별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는 형태로 전면 개편했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도전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농식품 산업 종사자들의 면밀한 현장 피드백과 치열한 실전 경진대회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상 등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 YAFF는 올해로 9년째 이어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농식품 분야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1,700명의 참가자들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 가능성과 자신들의 꿈을 키워내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농식품 산업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만의 역량을 펼칠 무대이자 유수의 식품기업들과의 인력 매칭을 위한 네트워크의 장인 YAFF) 9기 모집은 오는 10일까지이며, 공식 홈페이지(at.or.kr)와 네이버 카페(cafe.naver.com/yaff)에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